

'영호남 상생 大路' 광주-대구고속도로 내일 개통

교량 150개·터널 28개...총 10km 단축

1시간 40분 소요...30분 단축 시간·물류비 수천억 경제효과

편도 1차선, 최고제한속도 80km의 고속도로, '88고속도로'가 2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500일만에 걸친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논란은 있지만 그 명칭이 광주-대구고속도로(이하 광대구고속도로)로 바뀌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는 2조 1349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도로 폭은 11.2m에서 23.4m로 넓어지고, 동광주톨게이트에서 서대구톨게이트까지 운행거리는 기존 182km에서 172km로 10km가 줄었다. 운행시간도 2시간12분에서 1시간40분으로 30여분이 단축됐다.

4차로 확장 개통은 지난 1984년 6월 27일 왕복 2차로로 개통된 지 31년만이다. 1981년 10월 공사에 들어가 33개월 만에 완공된 이 고속도로의 원래 명칭은 영호남을 동서로 연결해 화합을 다진다는 의미의 '동서고속도로'였지만, 당시 서울올림픽 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88올림픽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꿨다. 총길이 182km인 이 고속도로는 기존 국도(195km) 이용 시 5시간 걸리던 거리를 2시간대로 단축시켰다. 하지만 고속도로인데도 편도 1차선에 불과했고, 시멘트 포장으로 시공됐으며, 중앙분리대마저 설치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1996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담양~성산 간(142.8km) 공사 착공 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화산 고서~담양(16km), 성산~옥포(13km)를 기존 2차로에서 4·6차로로 확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확장에 따라 현재 하루 평균 1만3800여대였던 통행량이 단계적으로 2만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비용 절감에만 연간 760억원에 달하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는 더 클



광주-대구고속도로에는 28개의 터널(총연장 17.7km)과 150개의 교량(총연장 12.9km)이 설치, 도로를 직선화해 총 길이를 대폭 줄였다. 사진은 전북 장수군을 지나는 교량(위쪽부터 시계방향)과 남원 산동5터널, 함양휴게소 기념 조형물. /김진수기자 jeans@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호남 간 인적교류와 물동량이 호남고속철 1단계 개통 때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운행시간 단축과 연료 절약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액,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 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높이 148.9m 교량

어떻게 달라졌나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국내 교량으로는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아로 대교, 한옥형상으로 된 함양요금소...

22일 확장 개통을 앞둔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올림픽 고속도로)는 영호남의 물리적 거리를 좁혀주는 것 외에도 끊겼던 백두대간의 생태 축을 복원하고 조형미와 기술력을 맘껏 발휘했다는 평가다.

지난 1984년 지리산을 두 갈래로 끊고 도로를 났던 곳을 터널로 바꿔 생태환경을 복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리산 구간에 굽이진 도로를 직선화하면서 5군데의 터널을 뚫고 기존 'V'자 모양으로 산을 파헤치고 놓았던 도로 2개 구간을 'n'모양의 터널로 만들었다. 남원시 아영면 사치터널, 남원시 용정동 교통산생태 터널이 바로 그것. 공단은 터널 꼭대기에 나무를 심고 지

리산 자락의 능선을 복원함으로써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 야생동물이 맘껏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천군 야구면 정대리 구간에 건설될 아로대교는 단연 광주-대구고속도로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국내 교량으로는 최고 높이인 148.9m(주탑포함), 길이 760m의 야로대교를 포함 총 150개의 교량(총연장 12.9km)으로 고속도로는 대폭 직선화되고 그만큼 거리도 짧아지게 됐다.

선비의 고장을 내세운 함양으로 진입하는 함양요금소는 한옥으로 건립해 지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관문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또 산중휴게소 양방향에 휴게소를 신설하는 등 7개의 휴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전자들이 운행 중 쉴 수 있도록 졸음 쉼터도 5개를 새롭게 만드는 등 편의 시설도 대폭 보강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윤철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사퇴

“개혁적 인물이 비엔날레 이끌어갈”

국비 삭감 막은 것 보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자랑거리로 광주비엔날레를 키워나가고 싶었지만 사퇴를 하게 돼 아쉽습니다.”

지난 18일 사퇴의사를 표명한 전윤철(76)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은 2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더 개혁적인 인사가 비엔날레를 이끌어 국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이사장직을 맡고가게 되면 광주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줄 것 같았다”며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정치에 뜻이 있어서 이사장직을 그만 둔 것은 절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가 지난 11월 천정배 의원(무소속)이 주도한 야권 신당의 창당추진위원회에 윤덕홍 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등과 함께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과 무관하다는 예기다.

전 이사장은 “공직생활 43년, 장관직도 13년 가까이 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에 눈을 팔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자신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비엔날레재단



에 내린 평가가 C등급으로, 매년 21억원이 책정되던 국비가 5억원으로 떨어질 상황이었다”며 “이를 다시 21억원으로 되돌려놓는 등 나름

의 노력을 해왔고 재단 재정확충을 위한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사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장 등을 지내는 등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였던 전 이사장에 대한 기대치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20년 역사의 비엔날레 개혁 작업에 박자를 가하고 광주비엔날레가 새롭게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 김모(36)씨는 “광주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분으로 기대가 컸었는데, 갑자기 떠나시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목포 출신인 전 이사장은 1966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재정·경제·감사 행정의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감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용희기자 kimyh@

광주전남연구원장 최종 후보에 박성수 전남대 교수

광주·전남 연구원(광전연) 새 원장 최종 후보자로 박성수(64) 전남대 경영대 교수가 선정됐다. 광전연 이사회는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원장 후보자 심의를 해 박 교수를 합의 추천했다.

이사회에는 이사 18명 중 16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이날 원장 임명 규정 논란을 막으려고 인사청문회 후 이사회의 결을 거쳐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도록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다.

박 후보자는 전남대 경영대학원장과 한국산학협동연구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사회는 학자 및 지역민의 일원으로 지역발전에도 열정을 쏟아온 박 교수의 ‘지역사랑’을 높이 평가했다. 또 다양한 경험을 살려 광주·

전남 상생의 정책기조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사회는 “초대 통합원장 선임은 난항을 거듭했다”며

“박 후보자가 지역현안에 해법을 제시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연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오는 24일 인사청문 요청서를 시·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도의회는 요청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1월 8일)에 청문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회 후보 조재윤·성문욱 압축

광주시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응모한 3명 가운데 조재윤 감사원 감사관과 행정자치부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 파견 중인 성문욱씨 2명이 후보로 추천됐다. 두 후보는 광주시, 인천시 감사관으로 활동해 감사 분야 경력을 쌓았다.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이달 초 시장 직속 기구 출범한 시 감사위원회는 임기 2년의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7명 위원 합의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달빛동맹·동서포럼 가속도...“이젠 철도다”

광주·대구, 조기 건설 정부 건의

22일 광주·대구고속도로의 개통은 지자체 간 교류 및 협력을 가속시킬 전망이다. 이미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을 경제, 문화분야 등 전방위로 넓혀가고 있으며, 전남도와 경북도는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과의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역 국회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민선 6기 들어 재개된 뒤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일인 22일 경남 함양군에서 달빛동맹민간협력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광주대구고속도로 이외에 광주~대구 내륙철도 조기 건설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시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4조8987억원이 소요되는 내륙철도(191km) 조기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 초혼 | 추천 회원 | 재혼 |
|---|--|---|
|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기자, 교사, 번역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번역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p> <p>VIP 희망 여성 29~53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p> <p>공무원, 교사 32~58세</p> <p>간호사, 회사원 29~48세</p> <p>자영업, 교사 35~64세</p> <p>'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동 70m 4차선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산동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u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